



'SDG4-교육2030'과 한국 고등교육의 이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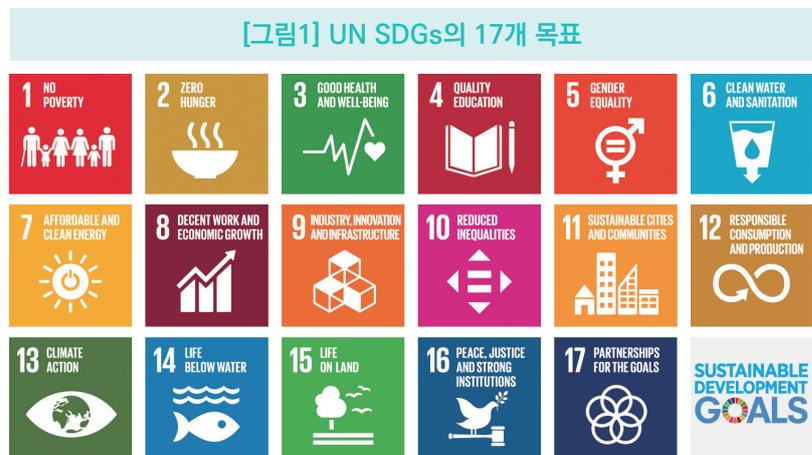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인 장호성
 작성자 황정원 선임연구원
 (jwh@kcue.or.kr)

2018년 제2호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SDG4-교육 2030

■ SDGs의 추진 배경

- 2015년 UN 총회에서는 개별국가와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분야의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함. 이는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사회 발전, 경제개발, 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17개 목표¹⁾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음(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a)
- 교육은 SDGs의 4번째 목표(SDG4)로 교육



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2030 지속가능 발전목표 중 독립목표로 강조되고 있으며, 보건, 경제성장과 고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등 다른 SDGs에서 교육 관련 세부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음(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 SDG4-교육2030

- SDGs의 4번째 목표(SDG4)는 SDG4-교육2030으로도 불리우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opportunities for all)'임
- SDG4-교육2030은 2000-2015년 국제사회에서 추진되었던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과 '새천년개발목표

<표1> 글로벌 교육의제 비교

	글로벌 교육의제		
	새천년 개발목표2(MDG2)	모두를 위한 교육(EFA)	지속가능발전목표4(SDG4)
범위	초등교육(아동)	기초교육 (아동, 청년, 성인)	기초교육: 기초교육 이후 교육 및 훈련: 평생학습 관점
지리적 대상	저소득국가 분쟁영향권 국가	의도는 보편적이거나 실제로는저소득국가에 초점을 맞춤	소득 수준/발전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위한 보편적 의제
정책 초점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 접근 및 이수	모두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 접근; + 기초교육 이후 교육·훈련에 대한 공평한 접근 + 노동과 "세계시민성"을 위한 학습의 적절성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b).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4 교육 2030, p.10

1) 17개 목표는 빈곤중식, 기아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평화·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임(그림1 참조).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미완 의제와 국제사회와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 교육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인천선언'으로 완결되어 선포됨(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2018b)

-SDG4- 교육 2030은 10개의 세부목표(그림2 참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기회의 보장은 국제사회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목표로 과거에 이를 초등교육에 국한시켰던 것과는 달리 SDG4에서는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교육의 내용과 성과를 포함한 교육의 질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안해정 외, 2016)

■ **국내의 SDG4-교육2030**

- 국내에서는 SDG4-교육2030 이행체계 수립에 있어서 2017년 교육부가 국가조정관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사무총괄관으로 지정됨.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SDG4-교육2030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2017년 국내 교육전문기관들과 교육2030 협의체를 구성함
- 2018년 5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부목표에 따라 워킹그룹 대표기관²⁾을 선정하여 대표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워킹그룹 대표기관들은 각 분야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8년 SDG4.3 고등교육의 워킹그룹 대표기관으로서 국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향후 국내 이행과제 및 목표를 발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에 기여하며, 국내 교육관계자 및 대국민에게 SDG4.3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림2] SDG4-교육2030의 세부목표



세부목표
4.1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 보장
4.2 양질의 영·유아발달,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4.3 양질의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4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적절한 기술 보장
4.5 교육의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과 포용성 보장
4.6 모든 청소년과 성인의 적정 문해력 보장
4.7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성 관련 학습 보장
4.a 효과적인 학습 환경 보장
4.b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의 실질적 확대
4.c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의 실질적 확대

출처: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http://overseas.mofa.co.kr/unesco-ko/wpge/m_8642/contents.do);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events/global-education-2030-meeting>)

II. 고등교육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4.3)와 한국의 이행현황

■ **SDG4.3 고등교육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지표**

- SDG4.3 고등교육의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임

2) 2018년 현재 전체목표 총괄(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별분야로 초·중등교육(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유아교육(육아정책연구소), 고등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업훈련교육(한국직업능력개발원), 범분야로 ICT(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형평성(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생학습(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모니터링·평가(한국교육개발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네스코에서는 세부목표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제별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SDG4.3에 대한 지표는 다음의 [그림3]과 같은 -글로벌 지표인 지표 4.3.1은 SDG4 세부목표의 이행상황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이며, 주제별 지표인 지표 4.3.2과 지표 4.3.3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교육 진전 상황을 파악하고 SDG4 세부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임. 또한 주제별 지표들은 글로벌 지표가 적절하게 다루거나 반영하지 않는 세부목표에 관한 개별적 과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b)


[그림3] SDG 4.3 고등교육 세부목표와 이행지표

구분	지표명	비고
4.3.1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년/성인의 성별 비율	글로벌지표
4.3.2	고등교육 총 취학을 및 성별비율	주제별지표
4.3.3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비율 및 성별비율(15-24세)	주제별지표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b).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p.12, 34

- 국내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채택하고('17.8, 국정 61-1),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SDGs)의 설정 및 목표·지표 체계 마련을 위해 범부처 수준의 협의체와 민·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K-SDGs 작업반을 운영 중임(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 SDG 4.3 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 세부목표에 대한 국내 이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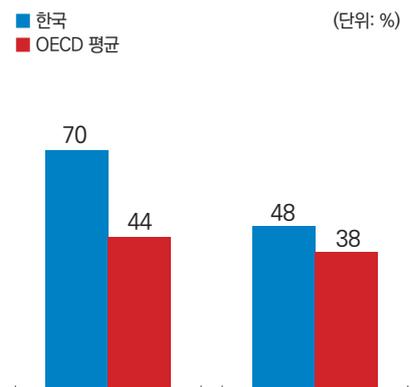
- 여기서는 SDG4.3 고등교육 세부목표의 지표 4.3.1과 지표 4.3.2에 대한 국내 이행현황을 해당지표 또는 유사지표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함
 - 첫째, 글로벌 지표인 4.3.1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년/성인의 성별 비율"과 관련하여 형식 교육 참여율은 유사지표인 우리나라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표2>는 OECD 국가들에 대한 해당연령 인구 중 고등교육 학력소지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이수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줌. '17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만25~6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OECD국가들의 평균(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만25~34세)의 경우에는 7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나타냄(그림4 참조) 그러나 만 55세~64세 고연령층의 경우 '15년 기준 18%로 OECD 평균(2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대 간 학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2> 고등교육 이수율 연도별 현황

구분	25세~64세		25세~34세		55세~64세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17년	48.0	38.0	70.0	44.0	-	-
2016년	47.0	37.0	70.0	43.0	-	-
2015년	45.0	35.0	69.0	42.0	18.0	26.0
2014년	45.0	33.0	68.0	41.0	17.0	25.0
2013년	43.0	33.0	67.0	40.0	15.0	25.0
2012년	42.0	32.0	66.0	39.0	14.0	24.0
2011년	40.0	32.0	64.0	39.0	13.0	24.0
2010년	40.0	30.0	65.0	37.0	13.0	22.0
2005년	32.0	26.0	51.0	32.0	10.0	19.0
2000년	24.0	22.0	37.0	26.0	9.0	15.0

주. 조사대상: 25~64세 연령 인구, 연도는 조사 기준년도임. / 자료: 각 년도 OECD Education at a Glance

[그림4] 고등교육 이수율(2017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OECD 교육지표 2018」 결과 발표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대별 차이와 동시에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표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즉, 우리나라는 만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낮아지고, 지역 행정구역에서 도시보다는 읍, 면단위로 갈수록, 권역으로 수도권과 광역권보다는 도 단위에서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3> 지역규모별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율(2015년)

(단위: %)

지역	합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전국	31.0	20.2	63.6	63.7	57.1	45.0	36.5	28.0	18.7	13.1	10.6	8.0	6.7	5.5	3.5
동부	33.2	20.2	64.1	64.6	58.3	46.7	38.3	30.0	20.3	14.6	12.1	9.7	8.8	7.5	4.8
읍부	26.0	19.8	61.8	59.3	52.5	38.7	30.2	21.7	13.8	8.4	6.5	4.7	3.3	2.9	1.6
면부	17.6	20.3	59.8	56.4	46.4	31.2	22.9	16.8	10.6	7.3	5.2	3.1	1.9	1.5	1.0
수도권	32.9	21.7	63.5	62.8	56.0	44.6	36.5	28.8	20.2	15.0	12.6	10.2	9.0	7.3	5.0
광역권	31.9	19.1	64.5	65.6	59.8	47.8	38.2	29.1	18.6	12.4	9.5	7.3	6.6	5.9	3.6
도단위	27.1	18.9	62.0	62.0	55.6	42.1	33.8	24.9	15.1	9.6	6.8	4.5	3.7	2.9	1.7

주.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 인구 수의 비율임
출처: 2015년 인구총조사(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이성은(2018). K-SDG4.3고등교육 세부목표 및 지표(안) 재인용

· <표4>와 <그림5>는 우리나라 성인(만25세~64세)의 최근 12개월간 형식교육기관 또는 비형식교육기관 평생학습 참여율로 '17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8%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의 변동추이를 보면, '15년 40.6%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하락하다가 다시 최근 상승 중에 있음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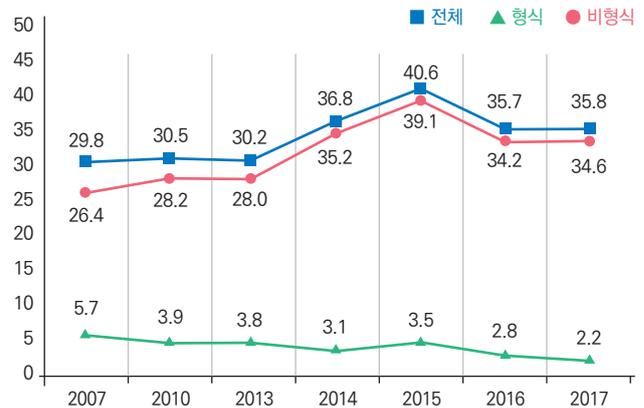
<표4>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형식	비형식
2017년	35.8	2.2	34.6
2016년	35.7	2.8	34.2
2015년	40.6	3.5	39.1
2014년	36.8	3.1	35.2
2013년	30.2	3.8	28.0
2010년	30.5	3.9	28.2
2007년	29.8	5.7	26.4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그림5]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연도별 추이



· <표5>는 우리나라 성인(만25세~64세)의 최근 12개월간 남녀별 평생학습 참여율임. '17년 기준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7.2%, 남성이 34.4%로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으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6>은 우리나라 성인(만25세~64세)의 최근 12개월간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 주고 있음.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증가 추세에서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17년 기준 만25~3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1.8%인 반면, 만55세~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8.9%로 12.9%p의 차이를 보임

- 둘째, 주제별 지표인 4.3.2 고등교육 총 취학률 및 성별비율은 <표7>의 고등교육 총 취학률 및 진학률 지표와 <표8>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통해 국내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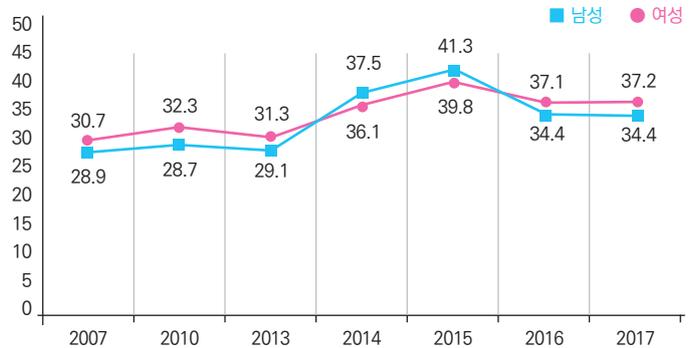
〈표5〉 우리나라 성인의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현황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2017년	34.4	37.2
2016년	34.4	37.1
2015년	41.3	39.8
2014년	37.5	36.1
2013년	29.1	31.3
2010년	28.7	32.3
2007년	28.9	30.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그림6〕 우리나라 성인의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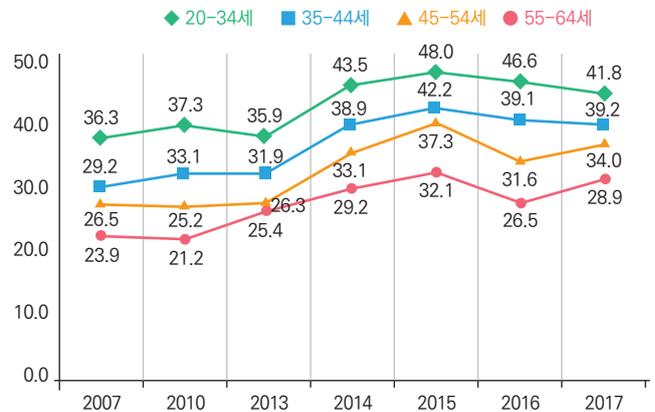
〈표6〉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율 현황

(단위: %)

구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17년	41.8	39.2	34.0	28.9
2016년	46.6	39.1	31.6	26.5
2015년	48.0	42.2	37.3	32.1
2014년	43.5	38.9	33.1	29.2
2013년	35.9	31.9	26.3	25.4
2010년	37.3	33.1	25.2	21.2
2007년	36.3	29.2	26.5	23.9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그림7〕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표7〉에서 고등교육 총 취학률은 고등교육 취학적령인구에 대한 취학생수의 비율로 고등교육 취학적령을 만18~21세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진학률이 50%를 넘었으며, '17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은 67.6%,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8.9%임. 이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내에 해당하는 취학적령기에 대부분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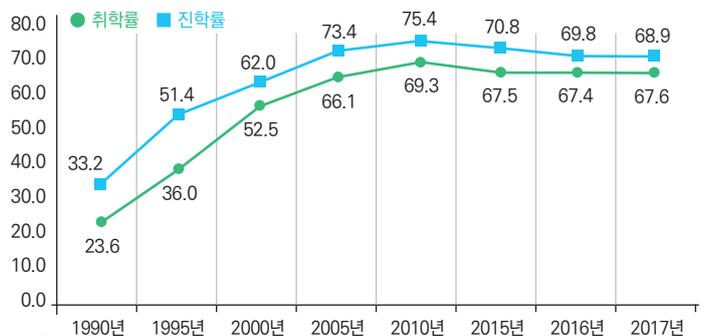
〈표7〉 고등교육 총 취학률 및 진학률 현황

(단위: %)

구분	취학률	진학률
2017년	67.6	68.9
2016년	67.4	69.8
2015년	67.5	70.8
2010년	69.3	75.4
2005년	66.1	73.4
2000년	52.5	62.0
1995년	36.0	51.4
1990년	23.6	33.2

주 1. 취학률 = (취학적령 재적학생 수/취학적령인구)×100
 2. 취학적령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2015년: 확정인구, 2016년~: 잠정추계치)
 3. 취학 적령: 고등교육기관 만18~21세
 4. 진학률 = (해당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해당연도 졸업자)×100
 5.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포함.
 6. 진학자는 2005년 이후부터는 국외진학자를 포함하며, 2005년 이전에는 미포함.
 7.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자: 2011년 이후 자료는 고등교육기관 4월 1일 기준 진학자이며, 2010년 이전 자료는 해당연도 고등교육기관 2월 기준 진학자임.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간추린 통계

〔그림8〕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및 진학률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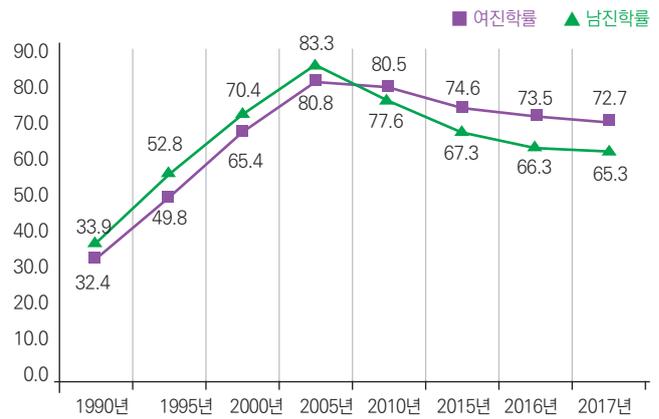
· <표8>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현황을 나타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남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1.5~5%였음.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는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 진학률을 추월하여, 2017년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5.3%, 여학생의 진학률은 72.7%이며, 성별차이는 7.4%p로 나타남

<표8>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현황

(단위: %)

구분	전체진학률	여진학률	남진학률
2017년	68.9	72.7	65.3
2016년	69.8	73.5	66.3
2015년	70.8	74.6	67.3
2010년	78.9	80.5	77.6
2005년	82.1	80.8	83.3
2000년	68.0	65.4	70.4
1995년	51.4	49.8	52.8
1990년	33.2	32.4	33.9

[그림9]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주 1. 진학률 = (해당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해당년도 졸업자) × 100
 2. 고등학교 졸업자 : 2014년부터 개정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임(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 개정)
 3.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포함.
 4. 진학자는 2005년 이후부터는 국외진학자를 포함하며, 2005년 이전에는 미포함.
 5.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자 : 2011년 이후 자료는 고등교육기관 4월 1일 기준 진학자이며, 2010년 이전 자료는 해당년도 고등교육기관 2월 기준 진학자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관련 지표를 통해 SDG4.3 고등교육 세부목표에 대한 국내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 기회의 접근성에 있어서 성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보다는 연령에 따른 성인의 고등교육 접근 기회와 지역 간 고등교육 접근 기회의 차이를 해소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의 접근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질 문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접근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국내 고등교육 정책 현황

•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학입시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선발제도(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와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을 들 수 있음

-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중에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접근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점차 대상 인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임(그림10 참조). 또한 '21학년도부터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의약학계열의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교육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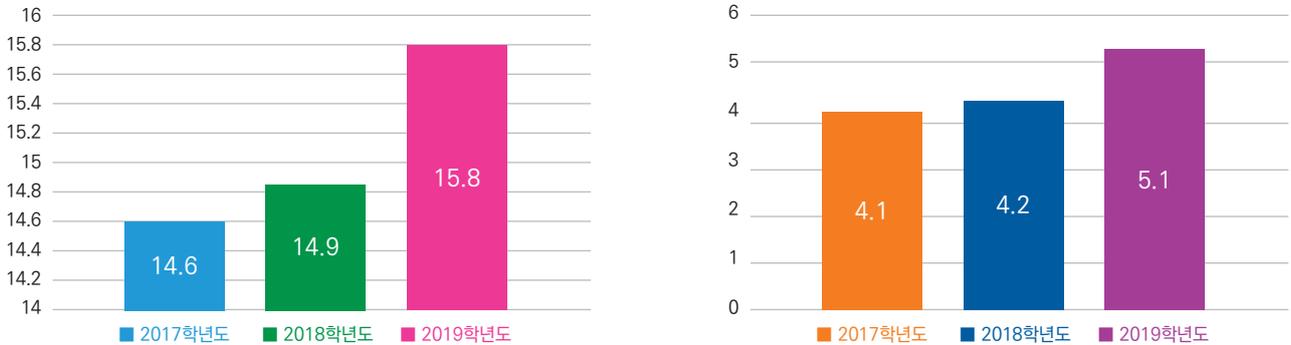
※ 고른기회 특별전형('17학년도 36,044명(14.6%) → '19학년도 41,837명(15.8%))

※ 지역인재 특별전형('17학년도 80개 대학 10,016명(4.1%) → '19학년도 82개 대학 13,404명(5.1%))

•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고등교육 접근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국가 장학금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해마다 그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표9>는 연도별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2012년 국가 장학금 정책 시행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국공립 대학은 65.8%, 사립대학은 52.9%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10] 대학입학 수시모집 고른기회 특별전형/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율 추이



주 1. 고른기회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2. 특별전형 비율은 수시모집 인원 중에 해당 전형 인원의 비율임.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보도자료

<표9> 연도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회계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평균 장학금	973	1,163	1,393	1,398	1,523	2,211	2,676	3,066	3,305	3,464	3,588	
국·공립	장학금(A)	701	862	1,081	1,114	1,168	1,833	2,193	2,545	2,576	2,582	2,659
	등록금(B)	3,744	4,099	4,151	4,247	4,291	4,040	4,026	4,010	4,031	4,037	4,042
	A/B*100	(18.7)	(21.0)	(26.0)	(26.2)	(27.2)	(45.4)	(54.5)	(63.5)	(63.9)	(63.9)	(65.8)
사립	장학금(A)	1,025	1,223	1,452	1,454	1,595	2,290	2,775	3,173	3,456	3,646	3,775
	등록금(B)	6,719	7,140	7,206	7,289	7,399	7,100	7,076	7,086	7,107	7,127	7,143
	A/B*100	(15.3)	(17.1)	(20.2)	(19.9)	(21.6)	(32.3)	(39.2)	(44.8)	(48.6)	(51.2)	(52.9)

주 1)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장학금합+교외장학금합)/재학생 수
 2) 교육대학교, 대학원대학교, 기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원격대학), 각종학교, 특별법공립, 특별법법인은 제외
 출처: 대학정보공시 등록금 현황 및 장학금 수혜 현황, 이성은(20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

II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방향

■ 연령, 지역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 고등교육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은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있어서 연령, 지역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성인, 특히 장년층에 대한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평생교육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혜택을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세대 간, 지역 간 고등교육 접근 기회의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미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어 양적 확대와 접근기회 형평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SDG4.3이 추구하는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보장을 위해서 향후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공공성의 확보,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공공교육비에 대한 높은 민간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표10>은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 경쟁력 순위를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IMD 대학교육경쟁력 순위는 2015년 38위(61개국 중)였으나, 2019년에는 49위(63개국 중)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8년 IMD 국가경쟁력이 27위, 교육경쟁력이 25위 점을 감안하면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또한 WEF의 대학시스템의 질 순위는 최근 계속 하락하여 2017년에는 137개국 중 81위에 그침

<표10> 한국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순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IMD ² 대학교육경쟁력	41(60)	53(60)	38(61)	55(61)	53(63)	49(63)
WEF ³ 대학시스템의 질	64(148)	73(144)	66(140)	75(138)	81(137)	-

주 1. ()는 전체 참여국 수를 의미함.

2. 스위스 로잔의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이 매년 발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의 하나로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를 의미함.

3.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의 하위 지표로 대학시스템의 질이 포함됨. 지표체계의 변화로 2018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https://kess.kedi.re.kr/index>), 최슬기(2017). 대교협 내부자료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의 64.6%이고(35개국중 29위), 이 중 공공재원은 OECD 평균의 35.2% 수준인 반면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133.3%임(표11참조)

<표11>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와 재원별 현황

구분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총액		재원별 금액(재원별 상대적 비중)				
	금액	OECD평균 대비비율1)	공공재원	OECD평균 대비비율2)	민간재원	OECD평균 대비비율3)	
2015(18)	OECD 평균	15,656	64.6	10,333	35.2	4,853	133.3
	한국	10,109		3,639		6,470	

주 1. 1)-3)은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비율임

2.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OECD 발간연도)

3.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는 해외재원이 제외되어 있어서 전체가 100과 다를 수 있음.

출처: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참고문헌

교육부(2018). 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OECD 교육지표 2018」 결과발표 보도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a).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b).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교육2030.

안해정·서예원·윤종혁·김은영·임후남·박환보·최동주·김명진(2016).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방안 연구: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방안, EduNEXT 14. 국회세미나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보도자료.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착수설명회 자료집.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